

한국 근대 복식문화에 나타난 아메리카나이제이션  
(Americanization)에 관한 연구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잡지를 중심으로-

안 선 경 · 양 숙 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f 'Americanization' expressed in Korean Clothing Culture  
-Through the Magazines from 1920's to 1930's-

Seon Kyoung Ahn · Suk Hee Ya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0. 6. 5 접수)

Abstract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oncept of 'Americanization' among Korean modern clothing culture by investigating magazines from 1920's to 1930's.

The Americanization of modern clothing culture can be divided to New fashion, Sports-wear, and Cloth improvement.

1. New fashion. Western culture was the main stream of new fashion, and modern boys and girls could bear cultural privileged consciousness. And the spread of modern culture was so fast that exaggerated fashion preference provoked extravagancy and loss of individuality.

2. Sports-wear.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initial sports activity was encouraged to regulate colony by principle and order. Through the sports-wear, practicality of clothing, exposure of female body, and the concept of T.P.O.(Time, place, occasion) were introduced.

3. Cloth improvement. The capitalism and modern concept of 'time' were introduced and promoted maximum productivity. And to increase productivity, imperialist educated convenience of western clothes and inconvenience of traditional Korean clothes. These could affect Koreans to think themselves a sense of inferiority(uncivilized complex).

**Key words:** Americanization, modern boys and girls, New fashion, Sports wear, Cloth improvement;  
아메리카나이제이션, 모던 보이-모던 걸, 신유행, 스포츠복, 의복개량

I. 서 론

개화기에서 일제 통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사

회의 근대성이 구성되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1)</sup>.

특히 이 시기는 다양한 서구의 근대적 특성과 함께 그 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서양복이 모던 보이, 모던 걸이라는 새로운 근대적 주체들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등장하게 된다.

그 뿐 아니라 영화, 사진, 신문과 잡지라는 기계복제문화를 통해 대중에게 처음으로 다양한 복식문화 현상에 대한 정보와 계몽이 함께 이루어지는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 일제 식민통치 기간은 제도적, 법적, 법적인 규제와 문화적 동화정책에 의한 일본화의 측면, 그리고 이에 저항했던 민족주의적 자각과 운동의 영향력 또한 부정할 수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만 그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온 '아메리카나이제이션(미국화: Americanization)'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식민역사와 그 안에서 구성되어온 복식문화의 또 다른 국면을 밝히는데 역점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일제 문화정치 시기인 1920년대에서 30년대까지 발간된 잡지들 중 비교적 '복식' 관련 내용이 많이 실린 '별건곤', '여성', '조광', '동광', '제1선', '삼천리'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시각적 자료의 보충을 위해 당시의 사진 자료 수집을 병행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아메리카나이제이션(Americanization)

개항 이전 1870년대까지 조선의 외교적 입장은 위정척사(衛正斥邪)나 양물금단론(洋物禁斷論)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실학의 대두 이후, 우리의 근본은 지키되 서구의 기술문명만을 받아들여자는 동도서기(東道西機)<sup>2)</sup>의 주장이 강해지면서 아메리카는 선교, 교육, 근대적 의료 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대형(大兄)으로서, 구원자, 시혜자의 이미지로 과장되게 등장하였다<sup>3)</sup>.

급기야 '서양=산업화=도시화=발전=훌륭한 것'과 '동양=비산업적=농촌=저개발=나쁜 것'이라는 도식체계가 자리잡게 되었다<sup>4)</sup>.

당시 조선은 제국주의 열강의 제3세계 식민지화 가운데서 유일한 동일 황색인종(일본인)의 지배를 받았던 특수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역사상 이제껏 단 한번도 일본에 대한 패배의식을 가지지 않았던 우리민족에게 군사적, 경제적 지배는 가능했으나 일

본문화에 대한 문화적 열등감을 강요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일제에 대한 굴욕감과 적대감이 미국에 대한 환상과 동경을 갖도록 하는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아메리카나이제이션(Americanization)'<sup>5)</sup>은 한국인들에게 있어 그들의 이미지, 지배적 허구, 그리고 무의식적 욕망에 기인한 나르시시즘이 향하고 있었던 근대화의 지향점이며 서구 문명에 의해 모욕당하고 미개성 극복을 위해 그들과 가까워질 회귀했던 시대의 심리 구조와 정향(orientation)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일제 식민지라는 특수상황에서 당시 조선인들에게 아메리카나이제이션은 자신들에게 결여된 것들, 즉 기술과 풍요, 역동성, 자유, 강력한 국가, 근대적 이미지를 가지고 싶다는 희망이었던 것이다. 한국은 개화기 이래 일제 시대를 거쳐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미국이라는 지배적 허구 그리고 준거들을 발전시켜 왔다.

일본도 조선의 미국과의 교류, 선교 사업을 지지하였는데,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선교는 문명의 영향력을 전파하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한국이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여가 되던 결과적으로 서양의 방식을 급속히 채택한 신 일본 문화 또한 받아들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기독교 선교는 전반적으로 경험주의적 근대 사상에 눈뜨게 만들고 의식주 개선, 여성 계몽, 서양도구 및 농사장비사용,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등의 스포츠 보급, 서구 유명작가들의 문학작품에 대한 취향 개발 등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인의 시각에서도 기독교는 민중으로 하여금 '자기에 대한 불만, 현실에 대한 불만'을 일으키고 신문화 건설의 변동을 일으키기 위한 원동력으로 비쳐졌다.

서구화 담론은 인종적 열등감 즉 인종차별주의로 발전하였다.

구라파 사람들은 가족이 희고 털이 명쥬실 갖치 굵고 얼굴이 분명하게 생겼으며 코가 바르고 눈이 크고 확실하게 박였으며 동양인종은 가족이 누르고 털이 검고 거세며 눈이 기우러지게 박였으며...<sup>6)</sup>라는 제국신문의 기사 내용으로 보아 처음 상면한 서구인에 대한 신

체적 위압감에서 오는 두려움이 그들의 문명과 문화에 대한 자각과 함께 위대한 인종에 대한 숭배로 빠르게 전환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기사에 난 여성의 인체 미에 대한 남성의 태도<sup>7)</sup>는 어깨가 좁고, 허리가 날씬해서 벌의 허리처럼, 둔부가 넓고 대퇴는 굵되 발끝으로 오면서 쪽 뺨은 형태가 미인형으로, 서양여성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신체 특성에 대한 비교 평가에서 사용된 어휘들은 백인이 이상시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 2. 기계복제 문화의 개창

한국에서의 아메리카나이제이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국 대중문화의 시작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sup>8)</sup>.

A. Hauser는 대중문화는 기술복제의 발달로 통속 문화가 대량생산 체제에 포섭됨으로서 생겨난 것이라고 보았고<sup>9)</sup>, L. Lowenthal<sup>10)</sup>도 대중문화와 엘리트 문화간의 분리는 중산층을 탄생시킨 사회적 변화와 과학기술의 변화시기에 발생했다고 하였다.

개항 이후 조선의 새로운 과제가 근대화로 모아지면서 개화, 계몽 등이 근대성의 이념적 기반을 구축해 나갔다면 새로운 대중매체, 새로운 생활양식 등은 감성적, 문화적 기제로 조형되어 나갔다. 그 중에서 기계복제 문화의 개창으로 영화, 사진, 축음기, 광고 등을 통해 현상이 아닌, 매체를 통해 복사 저장된 것이 다른 장소에서도 재현이 가능해짐으로써 문화의 대중화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영화는 대중적 일상의 소일거리의 주류가 되었고 1925년에서 1930년대 말 미국 영화가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한국영화관을 사로잡게 되었다. 영화가 문화 혁신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 할리우드가 보여주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젊은 여학생들에게는 절대적 동일시 대상이 되었고, 소학교 아이들이 미국 배우들의 말투나 제스처를 따라하게 되면서 미국 이미지가 작용하게 되었다<sup>11)</sup>.

그들은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 주권을 뺏긴 폭력적 현실로부터 도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근대화에 대한 열망, 미국에 대한 동경, 숭배의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할리우드 영화는 육체에 대한 새로

운 관심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육체를 가늠하는 기준의 변모를 가져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0세기 초의 경성은 충격적인 근대 이미지를 자아낸 대도시였고 이곳에서 가장 먼저 모던과 서구화를 일상으로 끌어내린 것은 상품과 광고였다. 대부분은 일본의 상품과 광고가 중심이 된 조선사회 역시 상품에서 서구화는 가장 빈번하고 유용한 광고의 전략이었지만 1930년대 이전까지는 광고에 등장하는 서구적 이미지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근대적인 상품으로서 자주 광고관을 장식한 상품이 구두, 양복이었다<sup>12)</sup>. 이런 상품들은 근대화된, 다시 말해 서구화된 신사 숙녀에게는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광고와 가장 잘 어울리는 상품이기도 했다.

1930년대를 전후하여 신문이나 잡지 광고에서도 두드러진 변화는 등장하는 사진이나 삽화에서 이전의 동양적인 여성이 서구적인 체형을 갖춘 여성들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그림 1]은 아지노모도라는 조미료 광고인데, 초기의 동양적이고 한복을 입은 여성의 모습은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점차 몸매가 길어지고 얼굴이 가늘어지면서 굵기야는 완전히 서양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서구화에서 가장 본질적인, 육체의 서구화 과정은 사물과 세계



[그림 1] 광고에 나타난 서구형 여성, 「女性」 1938, 12.

관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상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후 오게 되는 의식주의 산업에 이르는 물질의 서구화에 대한 양상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Ⅲ. 근대적 주체의 등장

개항이 물고 온 의미는 당시로 볼 때는 지금의 텔레니엄 전환기가 뿔어내고 있는 거대한 의미에 맞먹는 정도였다. 그 의미로는 조선왕조로 대표되는 봉건적, 전통적 맥락과 그 전통을 벗어나려는 기운 사이의 갈등에서 생겨났다. 이러한 갈등기에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게 되는 데 이러한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근대'라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비록 식민지 형태로 인해 외부로부터 강제 이식된 근대이지만 그것은 전래적인 윤리, 규범, 도덕, 미학, 가치관 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범주였다

'모던'의 개념이 서구에서 차용된 것이기에 우리의 것으로 개념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모던 보이, 모던 걸은 우리 식으로 근대아(近代兒), 근대처녀(近代處女) 혹은 시체아(時體兒), 시체처녀(時體處女)라고 표기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서구식 외양이나 물질로서 차려입은 자를 지칭하는지, 외양은 전통을 고수하되 정신적으로 시대를 선행하는 개화의 의식을 가진 자를 포함시켜야 하는지<sup>13)</sup>에 대한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이처럼 모던 보이, 모던 걸의 개념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그들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진보성과 퇴폐성이라는 이중적 성향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1. 진보적 성향

선교사를 통한 '신교육' 보급은 신사상이 수용되고 근대적 주체가 형성되는 기본조건이 되었다. 특히 1910년대 후반에 이르면 고등교육을 받고 일본유학을 거친 '신지식층'이 등장하였으며, 이들에 의하여 시대풍조가 주도되었다. 일본유학을 통하여 서구의 여성해방론을 수용한 초기의 모던 걸들은 자유연애, 자유결혼, 핵가족제를 통한 여성해방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주장하였다. "...오직 민적상 아내로 있는 그것이 무슨 두사람 사이의 연애 문제에 큰 장애가 될 것인가"라고 자유연애를 옹호하였고, "...사람을 떠나서는 정조가 없고 정조는 결코 도덕도 아니요, 고정한 것이 아니라 유동하는 관념으로 항상 새로운 것"<sup>14)</sup>이라며 전통적인 윤리를 부정하였다.

「모던·셀」이나 「모던·쏘이」의 의장을 살펴보면 여자가 양장을 하지 안코는 「모던·셀」축에 못 끼는 모양 갖해보인다. 양장이라도 뽀뽀 화사하고 경쾌하여 老사리아빋가튼 고풍적 색깔의 옷과, 길고 긴 「셀크 스타킹」... 머리는 넷날 예술가들 모양으로 '컷트'를 하였다... 쏘죽한 말과 구두, 무엇한아 갑만치 안은 것이 없서보인다... 얼굴생긴것이야 물론 가름하고 등그스름한 것이 만타. 아마 미인형을 말하는 듯 십다...<sup>15)</sup>

20년대의 '신여성'은 우선 머리모양과 옷차림새에서 '구여성'과 구별되었는데 유행의 첨단을 달리던 신여성은 단발에 개량한복 또는 양장을 하고 구두를 신은 '모던 걸(modern girl)'로 불리었다. 당시 신여성을 '하이칼라 여성'이라고 부를 만큼, 또한 '모던'이라는 말이 머리가 짧다는 '모단(毛斷)'<sup>16)</sup>이라는 말로 통할 만큼, 신여성의 단발은 새로운 풍조를 대표하는 상징이었다. [그림 2] 서양이름을 가진 단발 여인들의 모습에서 대중문화 속의 서구적 유행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의복 개량을 주장하면서 의복의 허리나 허리띠로 가슴을 겹겹이 등여매는 것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비판하였다. 신



[그림 2] 모던 걸, 「女性」 1938, 9.

여성들은 계몽교육을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자질향상, 생활개선을 여성해방으로 인식하였다. 이들은 각종단체를 통하여 여성의 의식계몽과 생활개선을 위한 강연회 개최, 야학, 강습소 개설 등의 활동을 벌여나갔다. 1920년대부터 밀려들어온 새로운 도시문화의 형성은 여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직업군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극장에서 표를 팔던 티켓 걸, 차장인 버스 걸, 엘리베이터 걸, 바 걸 뿐 아니라 운전수나 비행사를 직업으로 가진 이들도 생겨났다.

1917년 러시아 혁명, 1919년 윌슨(Wilson)의 민족자결주의는 1920년대 젊은 세대의 의식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당시 유행한 '개조'와 '개벽'이라는 용어는 세상과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젊은이들의 새로운 추세를 반영하는 역사적 용어라 할 수 있다<sup>7)</sup>.

'신교육'을 받고 '신사상'을 흡수한 '신청년'들은 사상, 노동, 청년 등 사회주의운동의 전영역에서 활동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사회주의는 사회전체로 파급되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를 말하지 아니하면 시대에 뒤진 청년같이 생각하게 되었다. 실제로 당시의 지식청년들 가운데는 사회주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서도 사회주의자인 척하는 태도가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사회주의를 생리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나 사회주의의 '착실한' 수용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유행을 좇는 경박한 모습으로 보였겠지만,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사회에 '신청년'이 하나의 집단으로 형성되고, 이들을 통하여 사회주의가 시대의 풍토로 되는 모습이었다.

## 2. 퇴폐적 성향

사회의 지식층이었던 그들은 식민지적 상황이라는 현실 속에서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의 좌절은 허무와 퇴역적인 자기혐오로 드러나게 되었다. 1930년대가 되어 신식교육이 확산되면서 지식인의 수효는 훨씬 많아졌으나 그만큼 고등실업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룸펜'이라는 말이 하나의 유행어처럼 번졌고 스스로를 멋스럽게 '룸펜'이라고 부르는 처도 늘었다. '룸펜(lumpen)'이란 말은 독일어에서 누더기, 엉망이라는 뜻으로 제정러시아 시대의 서구파

자유주의자들을 이르는 말로, 지적 노동에 종사하는 사회층 지식계급을 의미하며 이들의 본질적인 속성은 반항과 불안, 무기력 등이다<sup>8)</sup>. 이들은 가난 속에서 자족하고 자위하는 삶의 방식을 하나의 '낭만'으로 생각했고 룸펜문화라고 할 수 있는 독특한 정서가 시작되었다.

1920년대에는 일제 강점기 이전에 이름조차 없었던 '토막민'이 등장했는데, 주로 산기슭, 하천 변, 다리 밑 등에 '흙 굴을 파서' 흙 위에 명석을 깔고 주위에 짚을 펴서 만든 초가에 거주하는 빈민을 의미했다. 의생활을 보면 이들 토막민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옷을 단 한벌만 가지고 겨울을 났으며 두벌 갖고 있는 사람도 35%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도 빈곤과 의복지 품귀 때문에 새로 지어 입기 어렵고 여러번 기워도 옷은 이름 뿐이고 살을 가릴 수 없는 남루를 입고 있는 자가 적지 않았다<sup>9)</sup>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의생활 상태는 상당히 열악했다. 한편에서는 모던 걸, 모던 보이의 사치에 대한 금지 내지는 꼴불견이라는 기사가 상당히 많이 보임으로써 시대적 빈부차를 알 수가 있다.

요새 여학생들은 빈자리를 두고도 전체 뺨취에 걸터 안기를 실혀한다. 그 이유는...설백한 팔뚝에 동인 십팔금원권 시계 때문이다... 서서도 팔뚝은 거더부치고 「세루로이트」 고리를 붓잡고 잇서야 한다... 금시계가 업시는 여학생으로써의 자격이 없는듯하다<sup>10)</sup>.

그 당시 잡지에서는 성적이고 과기하다는 의미에서 에로티시즘(eroticism)과 그로테스크(grotesque)를 줄여만든 '에로', '그로'라는 유행어가 등장하였는데, 이것은 새롭게 지각하기 시작한 육체에 대한 발견이었다. 근대의 의미가 시대의 첨단이란 의미로 쓰이고 있을 때, 서구의 자유분방한 성 의식을 무분별하게 추종했던 모던 걸과 모던 보이의 출현으로 물질문명에 도취되어 퇴폐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던 근대적인 인간유형에 대한 사회적 질서와 경멸은 거센 반향을 일으켰다.

모더니즘의 구성원은 모보 모거오 그것의 양식은 짜스, 댄스, 스파드, 스포츠이오 그것의 표현은 애로, 그로, 년센스, 잇트이다... 모보 모거의 생활환경은 기계문명이다. 모보 모거의 지도원리는 나리깸(威金)근성, 속악적 취미, 제일주의로써 도장한 바 아메리카니즘이다<sup>11)</sup>.



[그림 3] 모던 걸, 모던 보이의 꼴볼건 「별건곤」 1927, 7.

[그림 3] 자본주의와 물질문명의 조수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일부 젊은이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도 속출하였다. 처음으로 양복을 입고 모자를 질끈 뒤로 눌러쓰고 어색한 넥타이에 '칠피코 구두'에 단장을 휘두르며 도시를 활보하는 모습은 식민지 젊은이들의 또 다른 자화상이었다.

특히 마약 중독증은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었는데 진보적인 청년운동 간부 중에도 마약중독으로 구속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음주, 흡연, 마약에 취하여 식민지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 했던 이들 젊은이들을 당시 사회에서는 '모던 보이'라 지칭하였다. '스트리트 보이', '스트리트 걸', '스틱 보이', '스틱 걸'로 불리기도 했던 모던 보이, 모던 걸은 불량소년, 불량소녀를 일컫는 의미로 '못된 보이', '못된 걸'로 불리며 성적으로 문란한 남녀를 가리키기도 했다.

근대사회가 형성될 무렵의 모던 걸과 모던 보이의 존재는 이렇듯 '서구 지향적' 의식이 반영되어 전통적 관습에 지내온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새로운 의식을 갖는 촉발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초기의 지식인들이 지니고 있던 봉건과 개화의 갈등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이율배반적인 성향으로 드러났고 무조건 서구화된 외양을 갖추기에만 노력하는 열개화꾼의 이미지로 퇴색되기도 하였다.

#### IV. 근대 복식문화를 통해 본 아메리카 나이제이션

##### 1. 신유행

유행은 대중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본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의 대중적 행동양식이다. 1930년대에 들어서 유행은 '현대적 삶의 풍속'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세태의 풍조로서 새로운 스타일을 처음 말할 수 있는 것은 '양풍(洋風)' 일 것이다.

양풍의 모습들은 당대인 대부분에게는 앞서 가는 모습으로 또는 기이한 모습으로 비쳐졌지만,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안목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곱게 비쳐지지 않았다. [그림 4] 1932년 최신유행풍경으로 송곳 같은 하이힐과 커다란 '스포츠맨 슈즈'를 신은 모던 여학생이다.

처음 유행은 일종의 문화적 특권 의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서구문화가 유행의 주류를 형성하기 시작한 초기에 서구의 문화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문화적 계급화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표징으로 서구의 유행 혹은 외양적 현상이 유행으로 자리잡았다.

어떤 여성은 서양사람의 노랑머리를 흉내내느라고 매일 머리에 과산화수소를 바르고... 하루에 일원도 못받는 숯걸도 하루에 단돈 이삼전도 못받는 공장 어린 처녀도 돈있고 시간잇는 유행때미담들의 웃치장을 따르려



[그림 4] 1930년대의 최신유행, 「동광」 1932, 11.

하고 점잔은 귀부인도 화류계 여성의 몸가짐을 본뜨려 하며...<sup>22)</sup>

이렇듯 유행은 곧 전통적인 사회에 대한 이질적인 문화를 접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따라서 조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일탈적인 행동양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즉 기생이나 카페 걸, 다방 마담, 가수 영화배우가 유행선도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당시에도 여성은 여전히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였지만 '모던 걸'이 등장하고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는 것이 나타나며 부분적이거나 여성이 주요한 상품 소비자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현실을 광고가 반영하고 있다. 신문, 잡지는 서구의 새로운 유행경향을 예측하여 게재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유행은 개성화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른 없는 치마 저고리 차림에서 벗어나 서구적인 모자와 하이힐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니면 하나라도 변화를 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차별화 시키는 의식의 발로였다.

요사이 경성가로에 흔하고 보기 실토록 볼 수 있는 부녀의 여호목도리가 가장 현저한 증거이다. 천명왕래 하면 구백명은 전부 여호목도리를 들었다. 그 중에는 방한이 목적으로 두른 것도 되려니와 그 중에서 몇 부분은 유행성에 감염된 경향이 많음을 본다<sup>23)</sup>.

그러나 이런 기사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행이 되면서 개성은 사라졌고 그것은 이제 하나의 대중화된 소비패턴이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계층마다 구분되는 일정한 유행이 형성되어 또 하나의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림 5] 오른쪽은 1930년대 서구 미인의 화장을 한 최승희의 모습이고 왼쪽은 일반 여성인데 눈썹 화장이 상당히 유사하여 당시의 유행경향을 보여준다.

## 2. 스포츠복

매체를 통한 대중적 오락이 정착되기 전에 스포츠는 가장 낮설고 이질적인 문화적 전환을 가져왔다. 스포츠는 초기의 계몽주의적 선각자들이 신체단련을 장려하면서 자발적으로 수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일제의 정책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스포츠는 사회적 규율을 익숙하게 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었으며 원칙과 규율을 통해 지배방식을 생산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으로서 스포츠가 장려된 것이다. 즉 흩어져 있는 대중들을 일사분란하게 지배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으로서 스포츠가 장려된 것이다<sup>24)</sup>. 그리하여 '근대'의 조건 속에서 우리 몸은 '권력'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사물화 되고 대상화 되었다<sup>25)</sup>.



[그림 5] 1930년대의 유행화장



[그림 6] 1930년대 남성용 스포츠복



[그림 7] 1920년대 여성용 테니스복, 『별건곤』, 1927, 11.

스포츠가 정착되는 과정은 서구문화의 수용 과정을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자본주의 문화의 성격 그 대로를 표상하고 있었다. [그림 6] 약소 민족으로 전락한 식민지 조선을 강성하게 하기 위해 스포츠 정신은 개조론에 근거한 지덕체 함양을 목표로 개인 인격수양의 훌륭한 방편으로 받아들여졌다. 스포츠의 생활화가 강조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의 바지와 구두 같은 서양복 착용이 대중들에게 권장되었다. 그러면서 서양복의 명칭이 그대로 불려지며 외래어가 생활 속에 익숙한 용어로서 정착되는 문화적 동화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잡지에서 스포츠에 관한 기사를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스포츠는 특히 신여성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교양이라고 권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등산, 하이킹, 수영, 테니스 등이 기사거리로 자주 등장하였다.

여성 등산복에 대한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에 오르자면 남자의 양복 바지 비슷한 것을 넓게 해서 입으십시오. 부라우스는 앞이 쪽 찢어진 와이샤스 형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비단을 입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두 문제로 당신

네들이 신는 굽높은 구두로는 애어 산에 오를 생각도 마십시오...<sup>36)</sup>

다음의 하이킹복장에 대해서 씌여진 기사내용은 마치 서양 잡지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번역한 듯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자는 저지의 원피스인데 그 빛은 오렌지입니다. 그리고 내여 신는 구두는 투백코 브라운의 스웨드 인데 구멍이 많이 뚫어진 로힐입니다. 사나이는 말쑥한 컨츄리 웨어는 보기만 해도 상쾌하게 에티켓이 다 맞았습니다... 팬츠는 그레이 플란넬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sup>37)</sup> 서구식 개념의 '에티켓'이 복장착용방식의 일환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때와 장소에 맞는 의복착용의 차별화 즉 T.P.O.(Time, Place, Occasion)에 대한 뚜렷한 구분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의 테니스복에 대한 기사내용은 기사가 1927년 '전조선여자 정구대회'를 보고 느낀점을 관찰기 형식으로 쓴 것이다.

선수들의 觀容察色부터 해보니 모다 배나무목침가티 통통하고 튼튼히 된 법이 과연 운동가 다워 보인다. 구스, 양말, 복장이 눈이 부시게 하-안데다가 었던 선수는 분까지 밧노고...운동복은 대개 상이한데 진주의 아람치



마가 절색이고 넥타이도 상이한데 평양의 빨간넥타이가 눈에 띄었다<sup>29)</sup>.

[그림 7] 교육의 일환으로 스포츠를 통한 여성의 자유가 신장될 수 있었고, 전국의 여학교마다의 특색을 가진 테니스복은 애교심과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특수복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수영은 여성에게는 공공연히 가장 신체 노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였고, 서구의 썬텐 열풍으로 인해 잡지에서 썬텐의 유행을 알려주기도 했다.

스포츠를 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짧은 머리형태나 복장의 실용화, 즉 신체움직임에 편리한 의복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자각과 함께 전통복의 탈피와 서양복의 착용 선호를 부추기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 사회전반에서는 특히 여성의 스포츠복 착용에 대한 배타적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복식을 통한 미국문화의 동화가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했고, 또한 식민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계층은 지식인이나 근대적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 제한되어 오히려 자신들을 특권화 시키는 계급 차별화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 3. 의복개량

서양의 역법과 시계가 도입되면서부터 근대적 시간관념<sup>30)</sup>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의 편의를 위해 건설된 학교와 공장의 확대, 철도와 우편, 전신망 등 교통통신의 발달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거치면서 근대적 시간의식, 시간리듬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근대적 시간의식과 시간리듬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즉 자본주의적 노동과정은 최대한의 생산성을 위해 고도로 정확한 시간측정과 동작관리를 추구했다. 그리하여 서로 다른 흐름으로 분산되어 존재하는 개개인의 시간을 사회적 권력이 집합적으로 조작, 통제, 관리하게 되어 시간이 권력의 직접적인 미시적 지배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지배가 인간의 삶과 신체에 관철되었다.

지도층 인사들은 근대성의 체제에 맞게 시간, 위생, 능률과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하여 전통복식의 전근대적 결합과 불합리를 계몽하고 대중들로 하여

금 근대적인 서양복 착용을 권고하였다.

조선인의 의복은 색, 질, 제도 이 세 가지가 모다 불편한데 전하게 되어 있는 까닭에 착용시간보다 재봉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형편이니 위선 입는 남자도 불편함이 한 두 가지가 안이나 재봉하는 여자의 苦難함은 실노 입으로 다 말할 수 없습니다...조선인의 의복 중에는 업셔도 도출것이 딱 만타고 생각하는데 특히 주의가튼 것은 넷날부터 전해 오는 슝관상 부득히 착용하나 그 실은 아모 작용이 없는 것입니다<sup>31)</sup>.

이렇듯 서양복 착용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조선인의 주의착용을 쓸모 없는 품목으로 낙인찍고 있다.

서양옷이나 일본옷에는 밋갈 모양이 천태만상이어서 입은 사람의 연령, 키, 얼굴, 살빛, 몸맵시, 취미, 직업, 철을 따라서 거기 맞는 제도를 올룰수가 있습니다. 조선 옷은 밋이라고 흰 것, 검정, 옥색 등엿가지 순색밖에 업고 모양에 이르러서는 그만한 차별조차 업서 서양사람이 보면 학교학생이 학교의 면령에 따라 일제히 교복을 입고 나서지 아니했나 의심하리만치 절문 부인네의 옷 모양이 똑같습니다<sup>32)</sup>.

개성이 없는 전통복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다는 명목 하에 오히려 계절별 의복색상을 정한다든지 의복의 길이를 제한하는 등 개성을 말살하고 획일화된 의복착용을 강요하는 점이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작업시 착용하는 의복에는 저고리에 단추를 달게 한다거나 버선대신 덧버선을 신어서 더러움이 쉽게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도 있었다.

조선여자들의 여름옷에 시급히 개량해야 할 것은 풀을 너무 세게 입지 아니할 것입니다...풀이 세서 네 귀가 번쩍 들녀서 그 속에서 몸이 움직이거나 말거나 장작 깨비 벗히듯하고 있는 것이야 말로 보기 흉합니다<sup>33)</sup>.

의복에 다듬이질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 이유는 쉽게 옷감이 상하게 되어 오히려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풀먹여 다림질을 하는 편이 더 실용적이라는 것이었다<sup>34)</sup>.

솜옷을 폐지한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첫째 위생상으로 보아서도 아조 좃습니다... 솜에는 낮분병균이 만히 잇술것도 사실인데... 그런 균이 싸라드러서 건강상 위험한 일이 부지중만할것ियो. 솜감드는대신 무명옷이나 양속으로 만든 것을 하나 속에 더 입으면 의복이 몸

에 착달리부터서 통통해 보이지도 안코 싹뚱하기도 솜 옷입은 폭보다 낫습니다. 솜옷 만드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면 위생상으로 보나 경제상, 능률상, 시간상, 어느 점으로 보나 하나도 낫볼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sup>34)</sup>.

근대화라는 명제하에 복식을 통한 의복개량은 전통복에 대한 단점만을 강조하여 민족 고유의 백색 착용, 두발형태, 착용방식이나 주의(周衣)착용 같은 복식에 대한 미개성과 비실용성을 강조하여 식민지 국민으로서의 열등의식을 갖게 하는 역할로도 작용하였다.

## V. 결 론

1920, 30년대 한국의 근대(modern)는 역사상의 한 시대로 고려하는 것보다 일종의 태도나 경향성으로 생각해본다면 그것은 서구적인 삶의 패턴을 지향하려는 의식적인 태도이자 행동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실학의 대두 이후 근본은 지키되 서구의 기술문명만을 받아들이자 동도서기(東道西機)의 주장이 강해지면서 아메리카는 우리에게 그 동안 약육강식과 우승열패의 논리에 따라 근대화의 선두에 선 나라로 선교, 교육, 의료사업을 통해 구원자, 시혜자의 이미지로 과장되게 등장하였다. '아메리카나이제이션'은 한국인들에게 있어 식민지 주민의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근대화의 선봉에 선 미국에 대해 환상과 동경을 갖게 했던, 그들과 같아지기를 회구했던 시대의 심리구조와 정향을 지칭하는 개념이었다.

기계복제문화의 개창을 통해 한국에서 처음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대중(mass)을 형성할 수 있었고,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 신체적 미의식을 서구적 근대미인으로 바꾸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더구나 잡지나 신문에 등장하는 광고에까지 서구형의 미인이 등장하여 상품소비를 통해 동양인도 서구형 미인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은연중에 제시하기도 하였다.

전통과 근대라는 시대적 갈등기에 등장한 새로운 근대적 주체인 모던 걸과 모던 보이는 '서구 지향적 의식'이 반영되어 전통적 관습에 지내온 대다수 국

민들에게 새로운 의식 형성과 유행선도자로서의 역할도 하였으나 무조건적인 서구지향화로 인한 부작용으로 퇴폐와 사치를 일삼는 열개화꾼의 이미지로 지탄을 받는 이중적인 모습을 지녔었다.

근대 복식문화를 통해 본 아메리카나이제이션의 양상은 '양풍(洋風)'의 새로운 스타일을 개성화로 표출하여 복식을 통해 타인과 자신을 차별화시키고자 하는 풍습을 유행시켰다. 신유행은 신분제 폐지로 인한 무계급 사회에서 자신을 타인과 차별화시키고 특권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과잉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빈부의 차이를 조장하는 폐단도 생겨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계복제술의 발달로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장유유서라는 뿌리깊은 유교적 전통사회에서 근대화된 교육을 받고 있던 모던 걸, 모던 보이라는 젊은 세대가 근대적 주체로서, 사회적으로 유행선도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층으로 부각되었다.

스포츠는 비록 일제의 사회적 규율의 내면화로 개체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훈련의 의도로 시작되었으나, 문화적 특성에 따라 스포츠는 복식을 통해 미국문화가 생활 속에서 내재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자각하지 못하고 있던 획일화된 전통복에서 탈피하여 개성을 드러내고 복식의 실용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의복의 에티켓이 강조되면서 비구체적이거나 T.P.O.에 대한 서구적 개념이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근대적 '시간' 개념의 정착으로 근대성의 체제에 맞게 시간, 위생, 능률과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하여 전통복식의 전근대성의 불합리를 계몽하고 근대적 서양복 착용이 권고되었다. 복식개량운동은 실질적으로 지나치게 '근대화'라는 명분 하에 강제적 성향을 띠어 실생활 활용에 있어 반발도 거세게 나타났다.

1920, 30년대는 조선왕조로 대표되는 봉건적, 전통적 맥락과 그 전통을 벗어나려는 기운 사이의 갈등기에 등장한 근대화의 물결은 역사상 우리의 복식체계를 가장 크게 변모시켰고 지금 현재의 복식문화 기틀을 갖추기 시작한 의미 있는 시기이다. 비록 시기적으로 짧은 기간이었으나 식민지배체제로서 우

리 문화형성에는 암흑기로 불리지만 그 과정에서 아메리카나이제이션은 한국복식문화 변화에 상당한 동인이 되었다.

## 참고 문헌

- 1) Mason, E. S., Perkins, D. H., and Cole, D.C.(1981), The economic and social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한국 경제 사회의 근대화』, 한국 개발연구원, 95-96.
- 2) 장석만(1997), “한국 근대성 이해를 위한 몇 가지 검토”, 『현대 사상』, 여름, 2호, p. 128.
- 3) 유명익 · 송병기 · 양호민 · 임희섭(1994), 『한국인의 대미인식』, 민음사, 291-293.
- 4) 김진송(1999), 『서울에 탄스홀을 許하라』, 현실문화연구, 17-18.
- 5) 유선영(1992), “한국 대중문화의 근대적 구성에 대한 연구”, 고대박사학위논문, 22-25.
- 6) 제국신문(1900), 5. 26.
- 7) 김용준(1936), “모델과 여성의 미”, 『여성』, 9월호
- 8) 강현두 · 원용진 · 전규찬(1998), 『현대 대중문화의 형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p. 16.
- 9) 최성만 · 이병진 공역(1983), 『예술의 사회학』, 한길사, 196-197.
- 10) 강현두(1987), 『대중문화론』, 나남, 22-31.
- 11) 안동수(1939), 『영화연극』, 제1호, 44-45.
- 12) 한국역사연구회(1998),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1』, 역사 비평사, p. 130.
- 13) 유광렬(1927), “모던-쎈, 모-던 쏘-이 大論評”, 『모던이란 무엇이나』, 별건곤, 12월, 112-113.
- 14) 김원주(1920), “우리여자의 요구와 주장”, 『新女子』, 2호, 4월
- 15) 박영희(1927), “有産者社會의 소위「近代女」·「近代男」의 特徵”, 『별건곤』, 12월, 114-116.
- 16) 유수경(1991), 『한국여성양장변천사』, 일지사, p. 187.
- 17) 한국역사비평연구회(1998),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2』, 역사비평사, p. 194.
- 18) 전해자(1982), 『한국 근대문학의 쟁점』, 정신문화연구원
- 19) 박건홍(1999), 『역사비평』, 역사문화연구소, 통권46호, 봄, 162-173.
- 20) 양백화(1927), “여학생과 금시계”, 『별건곤』, 12월, 78-79.
- 21) 오석천(1931), “모더니즘회론”, 『신민』, 6월
- 22) 윤성상(1937), “유행에 나타난 현대 여성”, 『여성』, 1월, 48-49.
- 23) 이숙중(1938), “婦人과 衣裳-最近流行의 華麗한 衣裳을 論함” 『여성』, 3월
- 24) 김진균 · 정근식(1998),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05-111.
- 25) 김윤성(1994), “개항기 개신교 의료 선교와 몸에 대한 인식들의 ‘근대적’ 전환”, 서울대석사학위논문, p. 3.
- 26) 조순영(1936), “여성과 등산”, 『여성』, 7월, p. 39.
- 27) 김상용(1936), “여학교 하이킹 광”, 『여성』, 4월, 4-5.
- 28) 이길용(1927), “전조선여자 정구대회를 보고”, 『별건곤』, 11월, 78-79.
- 29) 서울사회과학연구소(1997), 『근대성의 경계를 찾아서』, 새길, 41-71.
- 30) 박희도(1928), “衣服과 주방이 緊急”, 『별건곤』, 12월, 26-27.
- 31) \_\_\_\_\_ (1930), “너름과 여자의 의복”, 『별건곤』, 7월, 106-107
- 32) \_\_\_\_\_ (1930), “너름과 여자의 의복”, 『별건곤』, 7월, 106-107
- 33) 유영춘(1928), “여자로서의 생활개선제안”, 『별건곤』, 12월, 31-32.
- 34) 김영숙(1927), “겉옷실행, 다듬이 폐지”, 『별건곤』, 2월, 6-7.